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임시 공간 전전... 강의 효율 떨어져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강의와 학습을 위한 자체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캠퍼스 곳곳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강의집중도 저하, 학과활동 제한 등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와 학습, 연구는 현재 경상대, 법정대, 대학원동, 아라뮤즈홀, 법학전문대학원1호관(구 제2도서관) 등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교수연구실은 각 단과대학 곳곳에 마련돼 있다. 학생들이 법학공부를 하다가 여러가지 전공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한다면, 교수연구실이 있는 캠퍼스 여러곳을 누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과 강의가 3과목만 넘어가도 학생들은 이동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여러 강의에 맞는 큰 법전과 서적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라뮤즈홀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번갈아가며 이동해야 한다. 차가 없는 학생들은 가방이 무거워 캠퍼스에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기도 한다.

강의와 학습을 위한 공간도 서

로 동떨어진 곳에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자체공간이 아닌 임시공간에서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도 여럿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든 강의는 아라뮤즈홀에 임시로 마련된 어학용 강의실 2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20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공간에 24명이 강의를 받아야 하기에, 매번 옆 강의실에서 책상을 빌려오는 헤프닝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빌린 공간마저도 어학을 위한 학습공간이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를 진행하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법학강의의 특성상, 큰 법전과 관련서적, 노트북을 이용해 관례를 찾아 보는 등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자 할 때는 책상의 넓이가 부족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학생들은 당장 책상만이라도 컷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늘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과 특성상 토론수업을 진행해야 할때는 옛 제2도서관인 법학전문대학원1호관에 임시로 마련된 세미나실을 이용한다. 이 세

미나실은 1층에 있는 도서관 공간을 급한대로 가벽을 이용해 만든 공간이다. 토론을 할 경우, 옆 세미나실과 복도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또 학술교류를 맺고 있는 교수가 제주대에 왔을 경우나 2010년 신입생이 입학할 경우 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강경삼(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대학원의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지를 입학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타 대학원 입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시설적인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관계자는 "공간이나 시설부분이 법학전문대학원 소관이 아닌 타 단과대학에 있는 경우,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 대안은 법학전문대학원 3호관이 완공된다면 이같은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지난달 30일 벚꽃이 한창인 아라뮤즈홀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고희희 수습기자

'실용영어 강화' 강좌 인기

국제교류센터, 유학 대비 마련

모든 강의가 영어로만 진행되는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준비생을 위한 영어강의 특별 프로그램'이 국제교류센터 지원하에 제주대 최초로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 수강신청을 통해 현재 강의 중이며 '중급 글쓰기, 말하기' (토익 750이상)와 '고급 글쓰기, 말하기' (토익 85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를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쓰기 강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해하고, 문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됐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여 어법에 맞는 글쓰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 강의는 대중이나 집단으로 학생 자신을 나타내는 법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해하고 구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증진시킨다. 현재

강의 인원은 글쓰기 5명, 말하기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의 담당교수는 원어민 교수와 해외파 한국인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박도선(영어교육 3)학생은 "해외로 가야 배울 수 있는 academic writing을 기본전제로 학교 강의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문의 에세이를 배울 수 있어 좋다"며 "강의에서 제공되는 교재 외에 많은 자료와 샘플들, 여러 프로그램들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수학과 교수) 국제교류센터장은 "유학을 간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이해 못해 영어교육만을 받고 오는 경우를 감안해 사교육비 절감과 해외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이 강좌를 개설했다"며 "하지만 꼭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영어는 취직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수습기자

'지난 4년간 성과와 과제' 연찬회 개최 장선우 감독, 스토리텔링학과 공로교수 총여, 해냄활동가 17일까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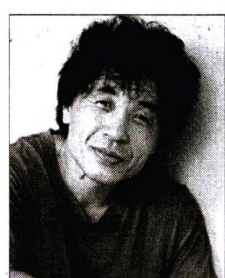
9일 오후 2시30분 라마다호텔 연회장서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할 2008학년도 연찬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제주라마다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연찬회에는 고충석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며, 본부 차·국·단장과 대학원장, 국제교류센터소장, 직업능력개발원장, 경영사업단장 등이 연사로 나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과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또 이효연 기획처장이 대학UI 설명회를 하고, 이개명 정보통신원장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기획처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예측하고 대학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해 왔다"면서 "올해는 제7대 총장 재임기간 중 성과와 과제 정리를 중심으로 대학 주요 현안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거짓말>, <성냥팔이소년 재림>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장선우 감독이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에 공로교수로 추대됐다.

'스토리텔링학과'는 영화, 게임 등의 시나리오 창작을 연구, 실습하는 대학원 과정이며, 장선우 감독은 '시나리오 콘텐츠 연구' 과목을 이번학기부터 직접 담당하게 됐다. 장선우 감독은 "제주도는 애깃거리가 많은 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전할지, 소재를 바라보는 방식, 전하는 테크닉 등을 스스로가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고 수업계획을 밝혔다.

제주현장상담센터와 총여학생회가 성매매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해냄활동가'를 오는 17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성매매근절을 함께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냄활동가로 선정되면 제주여성인권연대 교육실에서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영상물과 퀴즈 등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직접 성산업집결지를 방문해 홍보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해냄활동가로 활동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 이수

증 발급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을 수 있다.

총여학생회 신지수(해양토목공학 3)회장은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라는 말에 거부감부터 가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활동을 통해 '여성을 지키는 것은 여성자체'라는 의식으로 참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총여학생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여성인권연대 홈페이지(www.jwr.or.kr)를 참조하면 된다.

사령

김로마나(국어국문 1)

고흥희(사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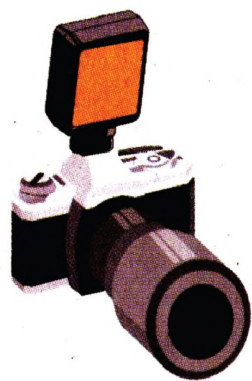
김도연(정치외교 1)

황형욱(야간경영1)

문정화(생물산업학부1)

수습기자로 임명함

이상 4월 1일자



제주대신문사 '57기 수습기자'모집

"제주대신문사에서 완벽하고 소중한 당신을 제57기 수습기자로 모십니다"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구 미국, 일본, 중국, 광주, 백두산 등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기회 제공

전자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매킨토시기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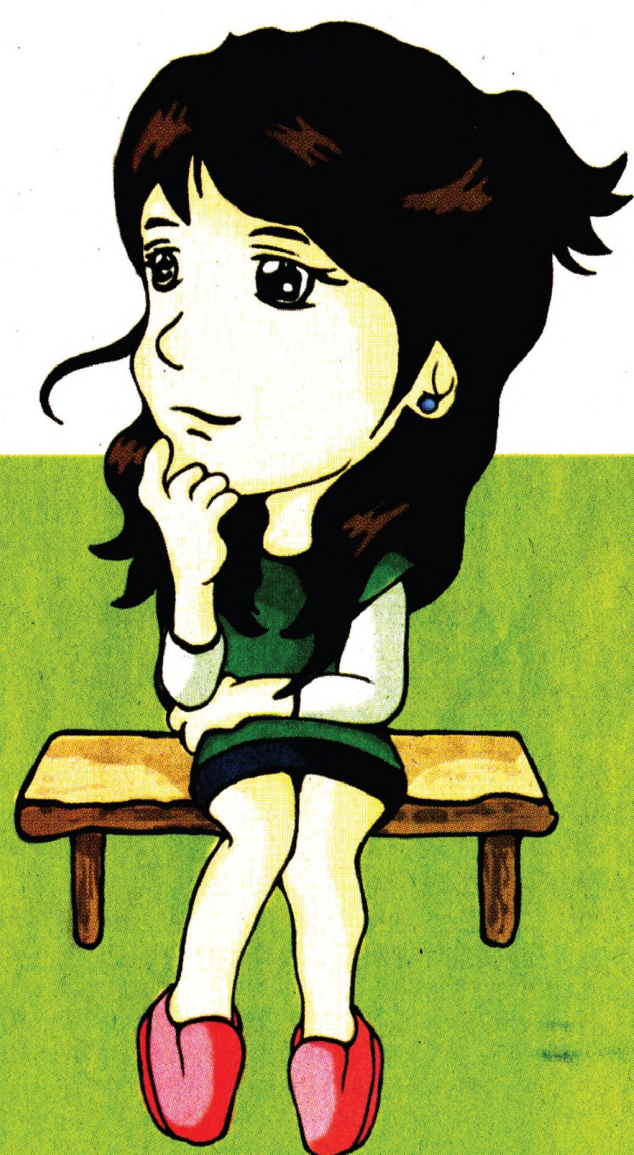
매킨토시를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아라뮤즈, 사라뮤즈 09학번 학생

장 소: 본관 동쪽 직업능력개발원 제단 3층에 위치한
논문출판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제주대신문사(754-2279, 010-6776-8277)



최첨단 시설 제주대병원 30일 개원

지상 6층, 지하 2층 등 연면적 8만㎡에 531병상 규모

제주지역암센터 및 4개전문센터 갖춰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대병원(원장 김상립)이 지난달 30일 아라동에 문을 열었다.

지상 6층, 지하 2층의 새 병원은 연면적 8만㎡ 규모에 531병상을 갖춰 도내 병원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제주대병원은 지난달 27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신축병원과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2004년 11월 착공한 제주대병원은 그동안 건축비 1312억원과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 300억원 등을 투입, 최근 완공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이를 계기로 제주 지역 암센터와 4개 중점센터(건강증진센터,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소화기병센터,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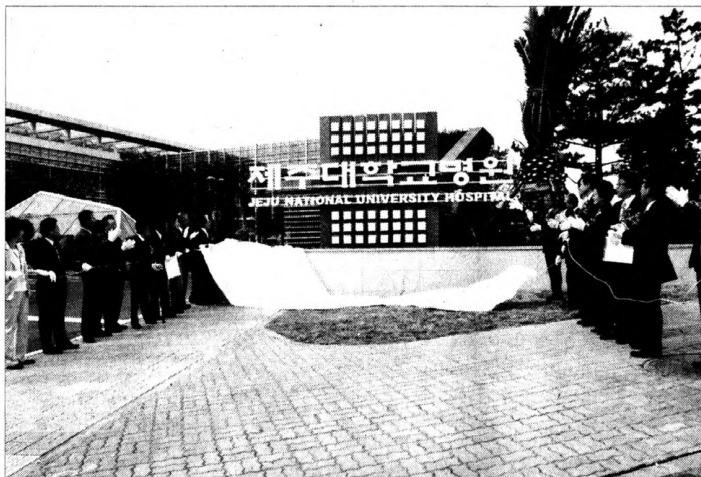
제주대병원은 ‘숲속의 병원’에 걸맞게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췄다. 병원 1층부터 6층까지 개방형 유리 커튼월로 이어져 하루종일 자연 채광이 이뤄진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진

료와 행정업무의 통합화에 따른 결재와 인터넷예약 등이 편리해지면서 진료비와 검사비를 내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했다.

병원 내에 폐기물 전용 컨베이어와 층별 클린에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과 공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완벽한 감염관리를 구현했다. 전체 531병상이 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침대로 꾸며진 가운데 전문요양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췄다.

의료장비도 방사선치료기기인 ‘선형가속기’,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 발생 여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PET-CT, ‘다중전산화 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 촬영기’, ‘초음파 검사기’, ‘디지털 혈관조영 촬영기’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자동화학 분석기’ 등을 들여왔다.

새 병원은 의료진 영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최근 13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등 133명의 의사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여기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대병원 현판식을 갖고 신축병원과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에 간호사 14명, 행정직원 8명 등 총 55명을 신규 채용해 총원만 685명에 달한다.

특히 제주지역 암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설치돼 암치료를 위한 도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암센터에는 함암센터와 실험실, 무균실, 수술실 등이 설치되며, 암치료 방사선 장비, 연구실 협장비도 도입됐다.

지역암센터는 도민에 대한 암치료를 비롯 조기 암 진단 등 예방

사업, 말기암환자 관리, 암 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암등록 통계 및 정보수집관리 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또 섬이라는 지역특수성에 나타난 암을 연구해 특성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병원 2층의 건강증진센터는 연령별 장기별 질환별로 1대1 맞춤진료를 구현하고 정보기술(IT)을 동원해 언제 어디서나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용복 대기자

대의원회 출범식 인터뷰

“홍보 강화에 역점”

“대의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대의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원회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말사내팸 등 기존 대의원회 활동 등을 활용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고생하고 있는 과대표들을 위한 대의원회를 만들겠다.”

— 중심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전산회계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까지 모든 회계장부가 수기로 작성돼서 수정이 가능했으나, 전산시스템 하에서는 입력 날짜와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수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총학생회의 공약인 ‘예산투명화를 위한 사용내역공개’와 연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우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확인 가능한 마스터ID 발급양식은 총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다.”

— 공약 추진도 게시판에 대해 듣고 싶다.

“게시판은 대의원회의 홈페이지(www.jejunu-f5.co.kr) 안의 한 메뉴로 제작 중에 있다. 공약 추진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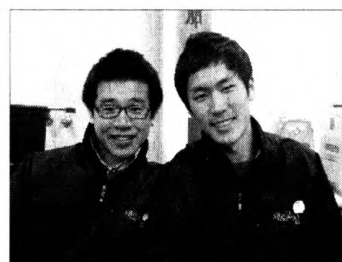
— 공약의 하나로 무료문자 확대 시행이 있다.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무료문자서비스의 경우 바른소리 대의원회 시절에도 시도가 됐던 부분이다. 당시에는 서비스용 휴대폰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로고침 대의원회는 메시지 전송 대행 사이트(www.new.xrosh.otbiz.com)와 계약,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과별 인원을 조사, 3배수에 해당하는 무료메시지를 매달 지원중이다.”

—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상임위원회는 각 단대별로 두 명씩 선출된다. 상임위원 둘에게는 C급상당의 장학금을 대의원회 예



산으로 지급할 것이다.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대의원회 자체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절대평가하고, 소속 학과의 과대표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 합산하여 선출하게 된다.”

— 공약에 올라 있는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하나

“자체적 강좌개설은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해 직능원의 특강들을 새로고침 홈페이지나, 현수막, 대자보를 이용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체 강좌를 개설한다면 학우들의 관심사를 수렴해 해당분야의 전문가 초빙을 구상중이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한다면

“냉철한 이성과 맑은 양심으로 빠르게 일하는 대의원회를 만들어 가겠다. 학우분들의 대의원회를 향한, 그리고 고생하는 과대표들을 향한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동아리연합회 출범식 인터뷰

“모두에게 친근한 연합회”

— 출범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은 게임위주의 여러 학생회 출범식과는 다르게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각 동아리의 개성을 살려 공연을 하고 전시창작 분과의 사진,그림을 전시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행히 출범식을 잘 치른 것 같아 기쁘다.”

— 앞으로 어떤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현재 우리 학교는 동아리 수가 워낙 많고, 각 동아리간의 성격도 다양해 규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모든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가 서로 친해져, 동아리연합회예를 전 동아리들이 친근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동아리 연합을 꾸려나가고 싶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이 있다면

“매해 갔던 금강산 모꼬지를 지난 2년간 가지 못했다. 올해에는 꼭 추진하고 싶다. 이를 통해 참여

자들이 통일의를 고취하고 금강산 현장을 직접 다녀오며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또한 배두관 지하 동아리 방의 벽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창문 부족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문제가 많다. 이를 위해 지하 2개의 방을 하나로 합쳐 창문을 확보해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는 되도록 올 여름까지 시행할 것이다. 또 현재 비어있는 갈래연합 자리를 밴드부 연습실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방안을 확실히 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동아리 도난 사고가 빈번한데, 원인과 대책은

“규정상 동아리 방을 잠그게 돼 있으나 대부분의 동아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도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은 동아리들이 스스로 문단속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동아리들은 다이얼 자물쇠를 채워, 열쇠 자물쇠보다 편의성을 높이고 도난도 예방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학우님들께서는 도난 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 현재 동아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동아리보다 학업으로 쏠린 것도 한 이유이며, 동아리 자체가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쇠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봉사동아리 같이 현재까지 건실히 활동하는 동아리들에 비해, 사라져버린 농악대의 경우만 봐도 동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비록 사라지는 동아리도 있지만 야구부 등 새로 생긴 동아리도 많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3월, 치열한 신입생 유치가 지나고 이제 한해의 사업들이 시작된다. 모든 동아리들이 활발히 활동하여 중도에 동아리를 그만두는 일 없이 사업들을 모두 잘 치렀으면 좋겠다.”

고용희 수습기자

사라캠퍼스 안내표지판 없어 불편 가중

자세한 안내 표지판 부착 필요

교육대학 사라캠퍼스 내에 기관 및 건물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알려줄 표지판이 없어 신입생과 대학에 찾아온 많은 외부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캠퍼스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대학 내부인의 안내 없이는 기관의 어느 한 곳조차도 쉽게 찾아가기 힘든 형편이다.

현 사라캠퍼스는 사라교육관, 미래창조관, 학생회관 등 총 10여 개의 건물이 있다. 사라캠퍼스의 부지의 경우, 그 넓이가 아라캠퍼

스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나, 건물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외부에서 방문 시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기 힘들다. 아라캠퍼스의 경우에는 넓은 캠퍼스와 많은 건물들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대학건물의 위치와 기관이 이름과 방향이 표시된 안내판이 캠퍼스 곳곳에 비치돼 있다. 그러나 사라캠퍼스 아무런 안내표지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을 처음 찾아온 학부모나 외부인, 신입생들이 캠퍼스에서 길을

해매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대학 캠퍼스 교통관리 관계자는 “여러 사람들이 대학에 찾아와 하는 문의의 대부분이 건물과 기관 위치를 묻는 것”이라며 “안내표지판이 없어 많은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윤경(교육대학 영어교육전공 3) 학생은 “지금은 대학에 익숙해져 기관을 찾는 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대학에 처음 입학 했던 때에 길을 헤매었던 기억이 있다”며 “신입생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이 재학생들에게 길을 찾지 못해 문의가 자주 오는데, 화살표가 표시된 안내표지판을 작게라도

설치해 대학이용에 불편 점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라캠퍼스 행정실 운영지원 관계자는 “이전에 교육대학 표지판이 있었지만 자연재해로 표지판이 손상된 뒤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통합과도기와 컴퓨터교육관의 이동, 학생회관이 여름방학 동안의 리모델링 등의 캠퍼스 내 변화와 이동이 있을 예정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캠퍼스 내 기관 이동과 건물 중축이 완성되는 올해 말 즈음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학생회 행사

총학생회

행사명: 4.3기획 전시
(동아리연합회 공동 주최)
일시: 4월2일~3일
장소: 학생회관

행사명: 유적지 답사
일시: 4월 9일
장소: 무등이왓, 동광리현묘,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서달오름, 탄약고터, 백조일손지, 송악산 어뢰정기지

대의원회

행사명: 대의원 상반기 총회
일시: 4월 15일 16시
장소: 법정대 중강당

동아리연합회

행사명: 간식 나눔 행사
날짜: 중간고사 시험기간 중
대상: 학생회관 동아리방, 스

텐드 동아리방

관광개발학과

행사명: 일일 호프
일시: 4월 4일 오후 6시부터
장소: 시청 OCN

간호학과

행사명: 간호학과인의 밤
일시: 4월4일 6시
장소: 그랜드호텔

자연대학생회

행사명: 확대운영위원회
일시: 4월 9일 오후6시
장소: 확대운영 세미나실

수의학과

행사명:체육대회
일시: 4월 3일 오전 9시
장소:용담 레포츠 공원

학생회 행사를 접수 받습니다.

제주대신문사에서는 각 학과와 단과대, 중앙운영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의 ‘학생회행사’란에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알릴 여러가지 내용들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 754-2279

제 29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년을 맞이하여 제 29회 백록 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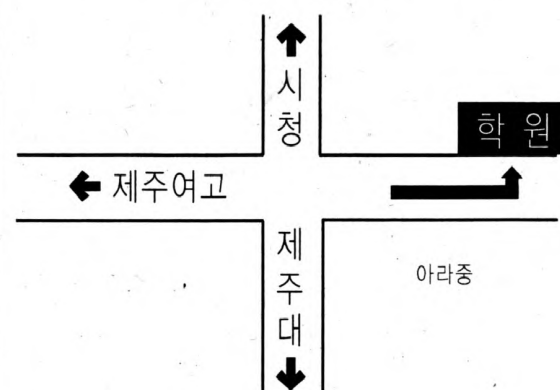
내 용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출판센터 행정실(직업능력개발원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USB)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18호(2009년 6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 단, 작품 수·작품의 수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 가능 함.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학내 교통문제 2제 ■

인문대 주변 불법주차, 주차관리 손 놓아

보행불편에다 교통사고 위험 곳곳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보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새학기를 맞아 인문대학 입구와 주변 주요 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문대학 1호관은 주차공간과 진입로 등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인문대학과 음악관 진입로에는 좁은 도로에다 버섯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

아 사고위험이 높다. 이들 불법차량들은 진입터에 길게는 1시간 이상 주변 1차선 도로를 완전 점거해 학생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차량진입시 정체현상을 빚어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인문대학 1호관의 주차능력은 15대에 불과한 상태다. 더구나 인문대학 진입로는 동서로 뚫린 상태가 아니어서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 다시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어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이 때문에 인문대 앞 인도 공간까지 불법주차한 차량이 접거, 학생들이 지나가기에 위험할 정도다.

이처럼 불법 주차가 심한 것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우선 운전자들 스스로 보행확보를 위한 불법주차를 지양하고 안전 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현(중문 3) 학생은 “인문대학은 좁은 도로에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인도 공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용록 대기자

■ 송석연 법학전문대학원장 취임인터뷰 ■

“누구나 인정하는 로스쿨 만들 것”

－ 취임소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교, 기관, 동문 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탄생했다. 이런 법학전문대학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기쁨 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감이 무겁게 느껴진다. 많은 관심과 지원에 부응하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최종 졸업자는 자격시험을 치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격률로 학교 평가와 신입생을 평가하게 되는데 최종합격률을 대비해서 전국의 상위그룹에 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이름에 맞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은 방향 기간 중 학사일정을 추가해서 학생들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세울 때 최소한의 인가규정을 맞추다 보니 훨씬 많은 준비를 해온 다른 경쟁학교보다도 환경이 열악하고 한계점이 많다. 재정적으로나 물적 기반, 시설, 도서 분야 등 가장 열악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 독립된 건물에 따로 없어서 교수와 학생들이 강의하고 듣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많다. 이런 점들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사항들이지만 지금 당장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재정적인 원인이 크므로 당국이 해소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법적 법률가 양성 주동이

다. 이번에 제주대에서 로스쿨 유치 추진한 학교는 제주대가 유일하다. 이번을 기회로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3호관 진행 공사가 중인데 잘돼 가고 있는가

“현재 인가신청서에는 2011년까지 완공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금년은 예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빨리 지어진다면 공간문제도 해결 되겠지만 2011년 까지 완공된다 하여도 내년에는 학생수가 증가함으로써 개설강의 또한 증가하니 지금의 3~4배 공간이 당장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곳 저곳에서 떠돌아다니며 강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좋은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조기완공



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즘 대학이 계량화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합격률은 그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 대학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결과가 제주대학교의 대외적 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주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길 바란다.”

문정화 수습기자

■ 김명용 사회교육대학원장 취임인터뷰 ■

“사회의 거름될 실용적 인재 육성”

－ 취임소감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원한 사회교육대학원이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대학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교육대학원이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개원 첫째,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내적으로는 학생 정원 문제 및 학과 증설 문제 등이 있다. 올해 2개 학과에 배정 된 입학 정원은 15명인데 이는 최소한의 정원이라고 생각한다. 2010학년도 그리고 추후에 입학 정원을 조정할 계획에 있으며 제주대학교 대학원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교육대학원에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 공간 확보와 행정 사무직원을 증원

해 나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대외적으로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국립대학의 사회교육대학원으로서 도민들의 참여를 어느 만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를 지역 사회에 어떠한 전문 영역의 인력을 배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할 것이다.”

－앞으로 학문과정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분야 전공이 될 것인가

“미래 지향적으로 내다 봤을 때에는 전공이나 학과를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미 개설된 학과의 전공을 세분화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는데도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에 있다.”

－개설된 2개 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현재 운영중인 과정의 교육방향은

“스토리텔링학과는 디지털 매체 기술과 문예 창작 방법론을 결합시켜 극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영상 시나리오의 창작 방법을 연구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그리고 심리치료학과는 놀이치료를 중심으로 심리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이다. 이러한 두 학과 각각의 교육과정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적 동력이 될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동시에 해가 거듭될수록 학문적 연구도 자연스럽게 점차 강화돼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회교육대학원의 개원 첫 해인 만큼 기반을 잘 다지고 운영하겠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스토리텔링학과도 기존 학생들이 들어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학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른 자연적인 홍보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설된 학과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형욱 수습기자

‘한줄 주차 캠페인’ 호응도 좋아

총학생회 주최, 학내 교통문제 해결 나서

학내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한줄 주차 캠페인’이 총학생회(회장 오경남 건축공학4) 주최로 지난 26일 아라캠퍼스 일원에서 실시됐다. 총학생회는 출입증 복제 등으로 인해 캠퍼스 내 차량 수용범위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총학생회에서 진행 중인 1개월 1개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캠페인은 피켓행진과, 홍보전단 배부, 불법주차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진재 (법학4) 총학생회 홍보국장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와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제주대라면 제주도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우들의 양심만으로

도 차량 5부제와 한줄 주차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로마나 수습기자

여러분의 정성이 제주대학교의 미래를 밝힙니다

후배사랑 장학금

동문선배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모교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갈 후배들에게 꿈과 의망을 잃지 않도록 후배사랑장학금을 모금합니다.

선배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기금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후배들에게 전달됩니다.

후배사랑장학금 모금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부안내)

- 모금은 구좌단위(1구좌 1십만원)로 합니다.
- 기부자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부자가 수여자의 기준이나 수여분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예우 및 예택 기준에 맞추어 예우에 드립니다.

PRF교수연구기금

제주를 움직이는 힘!

오늘도 제주대학교의 1천여 실험실과 연구실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묵묵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지식인프라의 핵심인 제주대학교는 동북아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내 연구역량을 한 곳에 모은 통합연구거점센터(Cluster)로서, 명실공히 동북아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기금 모금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부안내)

- 모금은 구좌단위(1구좌 1천만원)로 합니다.
- 기부자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부자가 수여자의 기준이나 수여분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 1천만원 이상 - 명패를 대학발전 유공인사 기념장소에 새겨 드립니다.
- 1억원 이상 - 동판 존영(부조)을 대학발전 유공인사 기념 장소에 새겨 드립니다.
- 5억원 이상 - 흉상을 제작하여 대학발전 유공인사 기념 장소에 세워 드립니다.

아트홀(Art-Hall)건립기금

제주 문화와 예술의 허브! 아트홀(Art-Hall)건립기금 모금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 제주도민들의 열린 문화센터
- 연극, 영화,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등 문화공연장
- 대규모회의와 대형강의, 세미나, 각종 국제회의의 장
- 추진규모: 면적1,320㎡, 객석규모 약700석
- 총공사비: 약 50억원

(기부안내)

- 모금은 구좌단위(1구좌 1십만원)로 합니다.(기부자에 대한 예우)
- 10만원 이상 - 현관 로비통판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50만원 이상 - 벽돌, 대리석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5백만원 이상 - 조형물, 벤치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1천만원 이상 - 각실에 기부자의 이름을 황금명패, 혹은 핸드프린팅과 함께 새겨 넣어 지정합니다.
- 1억원 이상 - 현관벽면에 존영(부조)을 각인하여 드립니다.
- 5억원 이상 - 건물입구에 흉상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 건물 전면유리창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기부시기와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편의와 사정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 출연약정서 서식은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홈페이지(<http://fund.cheju.ac.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나 기타 연락사항은 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으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064)754-2147-8

〈재학생-신입생 좌담회〉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제주대학교

참석자

양상혁 (전자공학 4),
고정현 (언론홍보 3),
허 별 / 안수은(독일학 1),
박준신(수의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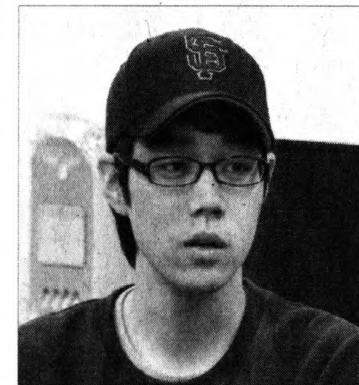
사회

이영윤 특별기자

신입생과 재학생이 만났다. 학년, 전공, 성별, 출신지 등은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발 딛고 선 공통분모 '제주대학교'에 대해 말하기 위함이다. 시작을 알리는 봄의 파릇파릇한 새싹과 결실을 기다리는 가을들녘의 풍성한 벼 이삭을 동시에 만난 느낌으로 시작한 좌담회는 시종일관 다양한 모습의 '제주대'를 만들어내며 치열하고도 진지하게 진행됐다. 그 현장을 요약, 정리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장소는 제주대 신문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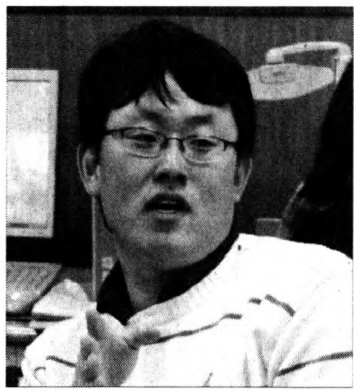


양상혁 (전자공학)

‘라고 평가할 정도가 돼야 한다. 막 : 타 지역에서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회의가 많이 열린다. 제주대가 활발히 국제회의와 연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대 학생들이 국제회의에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한다. 해외 다양한 분야와 수시로 교류하는 과정이 제주대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 본다.

학생·대학 발전 위해 졸업제도 강화 필요

학문·취업정보 미흡 아쉬움...해외교류 활성화 통해 경쟁력 갖춰야



이영윤 특별기자

사회 : 신입생들은 제주대 입학 후 느낀 점이 무엇인가.

박준신(이하 박) : 타 지역에서 제주로 왔는데 캠퍼스가 넓은 것이 맘에 든다. 시내보다 높은 지대에 있다보니 기온차가 커서 감기에 걸렸다(웃음). 다른 지역과 달리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허별 (독일학)

허 별(이하 허) : 공부나 생활면에서 선택이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든다.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기는 기분도 좋다. 학년이 올라가도 지금 다짐 그대로 풋풋하고 당찬 여대생으로 다녀야겠다.

사회 : 재학생 입장에서 신입생보다 학교생활 느낌이 다를 텐데, 3,4학년이 된 지금 대학생활 느낌은 어떤가. 신입생들에게 조언해 줄 점은.

고정현(이하 고) : 1학년때와 느낌이 많이 다르다. 새내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 못한 일들이 이제와서 압박감과 조급함으로 다가온다. 해야 할 것은 많지만 갖춘 것이 없으니 조급해지고 놓치는 것도 많다. 즐길 것은 즐기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도 잘 해놔야 한다.

양상혁(이하 양) : 지금 와서보니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 취업과 학교공부에 치중하다보니 1학년 때 정말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 쌓는 일은 1, 2학년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리 해 뒀으면 한다.

사회 : 재학생들은 지금 위치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취업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

양 : 아무래도 취직이다. 앞으로 살아

갈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럽다. 취업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고정현 (언론홍보)

고 : 취업이 역시 고민거리이다. 하지만 혼란이 있다. 내 인생은 취업이 다일까, 취업 이전에 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결국 남은 대학생활을 보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 능력을 채우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 신입생이나 재학생 입장에서 현재 제주대에 아쉬운 점이 있나.

박 : 충실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형했으면 한다. 일

방통형식 수업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쌍방향식의 수업이 이어졌으면 한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수업은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토론수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에 오니 기대만큼 다양한 토론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

허 : 학내 정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정보를 찾으려 해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국한됐다.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으면 한다.



안수은(독일학)

안 : 신입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쉽지 않다. 학교 측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제주지역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인 만큼 다른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쟁력을 갖

렸으면 한다.

양 : 학교가 섬에 위치하다보니 취업이나 학과정보 등이 부족함을 절감한다. 특히 전공하는 전자공학 분야는 제주지역에 취업할 기업이 희박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타 지역 학생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정보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

사회 : 신입생, 재학생 모두 앞으로 제주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학교 기능, 역할의 측면에서 대학에 할 수 있는 조업은 무엇이 있을까.

양 : 대학은 특정 학문을 좀 더 재밌고 심도있게 공부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본질적 기능보다 취업인력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뀐 것 같아 아쉽다. 대학은 취업률보다 학문적 역량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외국대학처럼 제주대도 입학보다 졸업이 힘들게끔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학생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런 과정은 대학과 학생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대로 된 학문·취업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 학생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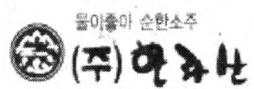
고 : 동감한다. 각 학과마다 학생이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제주대 학생은 경쟁력을 갖춘 좋은 인재



박준신(수의학)

안 : 학생을 위한 복지혜택에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면 한다. 교내 물품들이 타 대학과 비교해 가격대가 비싼 느낌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한다. 이를테면 시중에서 진행되는 포인트제를 도입, '제주대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 학생이 교내 시설을 활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리 = 이영윤 특별기자



세계(IWSC)가 명품술로 인정한

한라산소주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 소주는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주)한라산 지역사회 환원 현황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후원금
[매년 7억1천만원] (교육장학금, 체육성금, 적십자사, 각종학교 및 단체광고 스폰서 포함)

제주대학교
[5억2천만원 기부]

불우이웃돕기
[매년 3천만원]

(주)한라산은 창립이래로 58년간 순수 향토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소주 회사의 한라산소주 지분 소유는 근거없는 악의적인 횡소문입니다. (주)한라산 임직원 일동은 향토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산 임직원일동

〈문화 - 영화 속에 비친 4·3과 제주인〉

타국에서 '4·3'을 카메라에 담는다면?

4·3제주인 다룬 일본 영화 세 편...〈피와 뼈〉, 〈디어평양〉, 〈박치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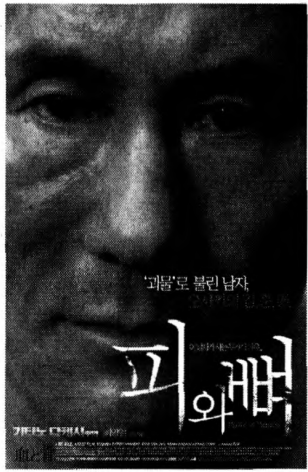
4·3은 다양한 대중문화 장르로 해석, 생성돼 대중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로서 4·3은 여전히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다.

그동안 4·3을 담은 다양한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조성봉 감독의 1996년작 〈레드헌트〉는 공개된 후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검열의 틀 속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후 제주에서는 김동만(제주한라대) 교수에 의해 〈무명천 할머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진상규명의 분위기와 함께 2005년 사실상 제주 4·3사건을 다룬 첫 장편 극영화 고(故)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는 세월〉이 만들어졌다.

이들 작품은 폭넓은 대중들과 만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4·3 영화는 진상규명 차원의 '운동'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짙었다. 한편으로 영화는 '산업' 측면에서 폭넓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 왔다. 영화를 통해 특정 사건을 '일반화', '대중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 4·3을 다룬 상업 극영화는 제작이 요원한 실정이다. 되려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직접적으로 4·3을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재일제주인을 중심으로 4.3과 제주인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영화가 대중들을 만났다. 4·3 61주기에 맞춰 타국 영화인들의 시선으로 해석된 4·3과 제주인을 다룬 영화 세편을 소개한다. 이들 작품을 감상하며 4·3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4·3을 다룬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피와 뼈(Blood And Bones) / 감독 최양일 / 2004년 제작
제11회 야마모토 주교로상을 수상한



재일 한국인 양석일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건너 간 김준평이란 남자의 충격적인 일생을 그려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재일한국인 거장 최양일 감독이 연출했다. 김준평 역은 일본 최고 코미디언이자 배우, 세계적 영화감독으로 인정받는 키타노 타케시가 열연하고 있다. 일본 배우 중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오다기리 조가 김준평 아들로 출연하고 있다.

홀로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괴물로 변신한 김준평의 삶을 통해 현대사의 질곡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실제 영화에서 제주어로 연기하는 일본 배우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전후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의 폐쇄한 삶도 지켜볼 수 있다. 200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최고 작품으로 평가 받은 수작이다.

최양일 감독은 수시로 4·3에 대한 애정을 밝혀 왔는데, 반드시 4·3을 영화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디어 평양 (Dear Pyongyang) / 감독 양영희 / 2006년 제작
제주가 고향인 재일제주인 1세의 아버

지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연출한 양영희 감독은 재일제주인 2세로 사회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며 이국땅 일본에서 평생을 혁명을 위해 생을 바친 아버지의 삶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다.

2006년 선댄스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월드시네마 심사위원 특별상', 베를린 국제 영화제 '최우수 아시아영화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실제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고향 제주도를 언급하며 제주어로 과거를 회상한다.

이 영화는 이념으로 인해 형제가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아픈 가족사를 담았다. 양영희 감독은 가족을 헤어지게 한 '이념'과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직접 카메라를 들고 영화를 찍으며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영화 속 양영희 감독의 가족사는 곧 한국의 현대사를 상징한다. 영화는 한국에서도 가장 이념적 대립이 극심했던 제주의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제주인의 아픈 과거를 비추고 있다.

▲ 박치기! - LOVE & PEACE / 감독 이즈츠 가즈유키 / 2007년 제작
흥미로운 점은 감독 이즈츠 가즈유키

는 한국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치기! - LOVE & PEACE〉(이하 박치기 2)는 어느 작품보다 그들 재일제주인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한다.



영화는 1974년 도쿄를 배경으로 재일 제주인의 과거와 현재 생활상을 빼곡히 담았다. 4·3과 서북청년단, 일제강점기의 정신대 동원과 강제징병, 일본 내에서 하층민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재일제주인의 생활까지, 감독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치열한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 작품은 유난히 제주와 연관이 깊다. 일부 장면이 제주에서 촬영됐다. 눈에 익숙한 제주갈옷과 제주해안가를 만날 수 있다. 한·일 배우들은 제주어로 연기하기 위해 제주에서 상주하며 제주어를 익혔다. 서툴지만 제법 매끈하게 다듬어진 제주어 대사가 친숙하게 들린다.

특히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한국 배우 송창의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핍박받는 재일제주인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일본의 극단적인 폭력을 되새길 수 있다.

이영은 특별기자

문화광장 인터뷰

“문화적 경험·기회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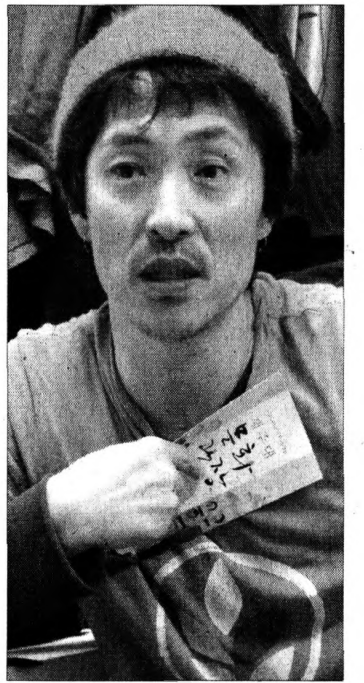
학력 중심의 사회풍토 바뀌어야

제주대 문화광장의 세 번째 강사로 대중 가수인 강산에씨가 초청됐다. 지난 달 26일 아라뮤즈홀은 그의 공연과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객석은 물론 계단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라구요', '넌 할 수 있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언어처럼' 등 강산에씨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려줬다. 공연이 끝난 뒤,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대기실에서 무대 위에서와는 또다른 진지한 모습의 강산에씨를 만났다.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는 강산에씨. 그는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인데도 이국적이고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제주도가 기온이 따뜻하고 바다와 산이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렇게 좋은 제주도에 개인적으로 내려오기가 힘들었는데 마침 문화광장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묻자, 그의 학창시절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다. 그러나 대학에 적응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중간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다. 그에게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능력이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마지못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길이 된다. 그곳에서 서빙일을 하며 예술인을 꿈꾸는 사람들과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도 처음부터 가수가 꿈이 아니었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꿈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왔다는 그는 지금의 사회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요즘 사회가 학력을 중시해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꿈을 사회가 억누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씨는 “어릴 때



강산에

는 기본적인 소양만 잘 갖추고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대학교 때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강씨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문화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사회가 학력 중심의 사고와 경제, 시간문제로 문화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88올림픽이 끝난 직후 89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 여행 자율화가 이뤄졌을 때,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 그 때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어디엔가 갇혀있었던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보고 들었던 체험이 그에게 굉장한 충격이 된 것이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그의 삶에 여유가 생겼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문화적 경험과 기회가 사람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제주대 문화광장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많이 경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수습기자

제주 4·3사건 61주년 행사일정표

일정 : 4. 2(목) 시간 : 18:30~20:30 행사명 : 4·3전야제 장소 : 문예회관 앞마당 주관 : 제주민예총	장소 : 4·3평화공원 주관 : 4·3보행위원회	행사명 : 4·3미술제 장소 : 문예회관 제1전시실 주관 : 제주민예총	일정 : 4. 5(일) 시간 : 10:00~15:00 행사명 :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해원상생관' 장소 : 어영공원 맞은편 공터 주관 : 4·3연구소 제주민예총	일정 : 4. 11(토) 시간 : 18:30~20:30 행사명 : 제1회제주4·3 희생자 해원 연등 띄우기 장소 : 제주시 동문분수대 광장 일원 주관 : 4·3유족청년회	행사명 : 4·3문화아카데미 - 4·3위령의례의 변천 과정 장소 : 4·3평화기념관 주관 : 4·3평화재단
일정 : 4. 3(금) 시간 : 11:00~12:00 행사명 : 제61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위령제	일정 : 4. 3(금) 시간 : 19:00~20:30 행사명 : 4·3평화음악제 장소 : 문예회관 앞마당 주관 : 제주민예총	일정 : 4. 5(일) 시간 : 10:00~16:00 행사명 : 4·3역사순례 장소 : 해원방사탑, 도두봉 4·3평화기념관 등 주관 : 4·3도민연대	일정 : 4. 11(토) 시간 : 14:00~16:00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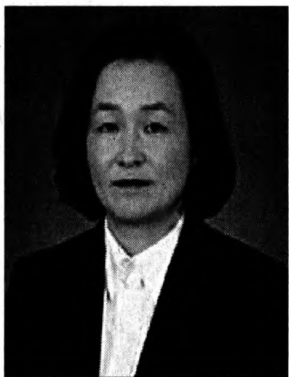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

◆ 인도 민화의 이해

인도 민화는 신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표현



인도에는 우리나라의 33배나 되는 땅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다. 또한 인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문화적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도 문화의 저력은 그들이 고대로부터 믿어온 힌두교와 신화일 것이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신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그런 만큼 그들의 삶은 신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도인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과거 완료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이야기이다.

인도는 고대문명의 발상지

인도인들이 불리한 자연조건과 복잡한 정치적 격랑에도 꺾이지 않고 찬란한 고대 문명과 정신유산을 창조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신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인도인들에게 하루는 신에게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도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사원과 신상을 볼 수 있다.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의 집에 크든 작든 신상을 모셔둔 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도인들의 삶이 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만큼 인도의 미술은 그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인도 라자스탄 사막 한가운데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의 여인들은 매일 아침 자신들의 집 앞에 신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 문양을 그려 놓는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작은 창작의 기쁨이자 신을 명상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도인들의 오랜 삶의 지혜일 것이다.

인도 민화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화의 역사가 오랜 만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민화가 그려지고 있다. 인도에는 인구 수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있다. 힌두교의 신들은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하나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다시 현신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거의 모든 신들은 1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인도 민화는 인도의 오랜 종교의 전통과 더불어 2,000년이 넘는 오랜 미술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화의 전통은 아직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민화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지지만 주제는 대부분 11억 인도 인구의 70% 이상이 믿는 힌두교의 신들이다. 물론 신화적인 주제 이외에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제들도 있다. 민화 제작은 대부분 여성들이 그들의 집을 장식하거나 신을 맞이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분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시골 마을에선 축제나 의식의 일부분으로 민화를 그린다.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왈리족들은 결혼식을 위한 벽화(참고 도판 1)가 그려지고 나야만 비로소 혼인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 특정한 벽화 앞에서가 아니면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는다.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들이 벽화를 그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음악과 춤을 즐긴다. 이처럼 중요한 의식을 위해서 그려지는 벽화는 그들에게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즉 그들이 그린 벽화 안의 신의 축복이 없이는 결혼식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민화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힌두교 신화로 주로 신들의 형상이나 그들의 행적을 주제로 하며 두 번째는 인도의 위대한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이고 세 번째는 자연예찬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이다. 인도에선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민화가 그려진다. 그것은 바로 그 주제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림이나 문양을 그리는 행위는 곧 신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판매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시골 마을에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마을의 아녀자들이 한 팔에 아기를 얹은 채 쭈그리고 앉아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색채로 밀그림도 없이 그려내는 민화는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작자의 기쁨이 묻어나 있다.

인도민화는 넓은 땅덩어리에 맞게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자스탄 같은 사막지역에선 주로 흙벽에 벽화를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양을 그린다. 2,0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왈리인들의 민화는 추상적인 인체의 표현과 더불어 인도 내에서도 그 가치가 널리 인정받고 있다. 왈리인들은 신을 맞이하는 의식의 한 부분으로 흙벽에 벽화를 그려놓고 음악과 춤을 추며 밤을 지새우며 신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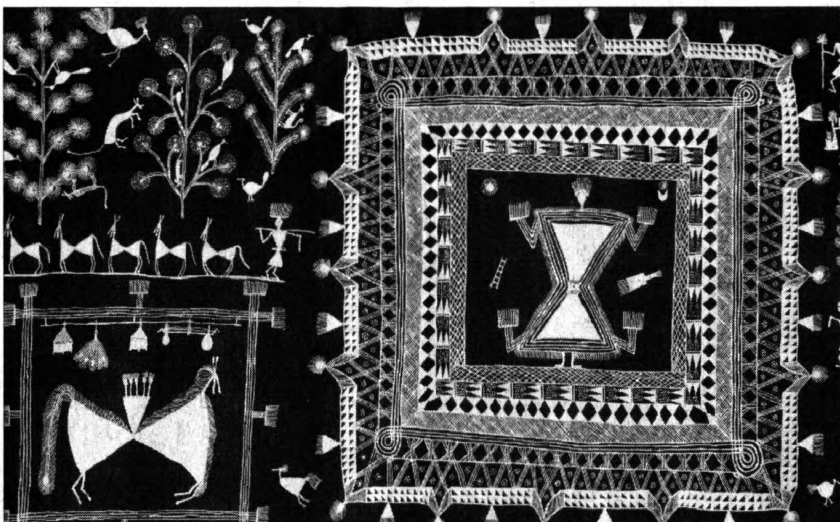
비하르 주에서 그려지는 마두바니 민화는 아마도 인도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고 많이 그려지는 민화일 것이다. 이 지역 민화의 주제는 신화의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일상을 다룬다. 민화를 그리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그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물감과 시간이 주어지면 그림을 그린다. 물감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것이며 붓은 따로 없다. 가는 나뭇가지나 대나무를 잘라서 가장자리를 목화솜으로 감아서 면봉처럼 만든 다음 물감을 묻혀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색채로 가지고고 그림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그림의 한 부분이 채색이 되지 않은 채로 그림을 완성해 버리기도 한다. 이 지방에선 거의 모든 여인들이 모든 축제나 행사 때, 보름달 혹은 반달을 기념하는 축제를 위해 혹은 생일,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베란다의 마루바닥이나 마당 같은 곳에 꼭 장식문양을 그려 넣곤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이다. 인도인들이 신을 맞이하는 의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처럼 문양을 그려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굳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정성과 신심이 담긴 문양으로 장식하면 바로 그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미타라 지역에서 여인들에 의해 그려지는 청혼의 그림 코바르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그림이다. 그림은 주로 단색으로 그려지며 남성의 생식기 링검과 여성의 생식기 요니를 표현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고기, 뱀, 거북 같은 문양으로 장식한다. 또한 태양신 수리아와 달의 여신 찬드라도 같이 그려진다. 인도 남부 지방에서 그려지는 민화들은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면직물이나 비단 혹은 마른 나뭇잎 위에 그려진다. 물론 주제는 신화의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풍부한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섬세한 기교가 두드러진다.

민화 문양을 그려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굳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정성과 신심이 담긴 문양으로 장식하면 바로 그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미타라 지역에서 여인들에 의해 그려지는 청혼의 그림 코바르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그림이다. 그림은 주로 단색으로 그려지며 남성의 생식기 링검과 여성의 생식기 요니를 표현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고기, 뱀, 거북 같은 문양으로 장식한다. 또한 태양신 수리아와 달의 여신 찬드라도 같이 그려진다. 인도 남부 지방에서 그려지는 민화들은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면직물이나 비단 혹은 마른 나뭇잎 위에 그려진다. 물론 주제는 신화의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풍부한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섬세한 기교가 두드러진다.

신화세계와 교감

인도 민화는 바로 인도인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표현이다. 각 마을마다 혹은 각 부족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는 민화에는 한결 같은 정성이 담겨 있다. 그들이 그리는 민화에 그려진 신은 곧 그때부터 생명을 부여 받아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도인들의 일상 속에서의 민화 그리기는 어쩌면 신을 향한 기도이자 하루하루 삶을 마치 윤희하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진희 박물관 특별연구원



왈리민화, 결혼식의 벽화,면에 채색,104 X 95cm

인류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로컬 푸드'



『로컬푸드(Eat Here)』
브라이언 헬웨이, 김종덕 외(역)

얼마 전부터 식당 메뉴판에는 '국내산', '제주산', '호주산'이라는 재료의 출처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최근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먹을 거리에 대해 그 출처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대부터 폭증한 급격한 식음료업계 사고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약용해 사의를 추구하고자한 점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인간관계의 불신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런 광범위한 불신의 확대를 단지 음식재료의 출처를 명확히 따져 묻는 것으로만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대문명을 위기로 몰고 간 자본주의의 폐해, 근대문명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문명의 위기가 더 이상 해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 불신에 달려 있다는 맥락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헬웨이(Brian Halweil)의 『로컬푸드(Eat Here)』(서울, 2006)는 바로 먹을 거리를 통해 이런 인류의 불신과 근대문명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세계 식량체계의 문제점과 대량농업의 위험성,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로컬푸드' 실천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저변이 깔려 있다.

저자는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먹거리 생산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생태적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전역에 지역사회지원농업(CSA)을 비롯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을 돕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역자들 또한 한국사회의 농업위기와 지역식량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로 한국의 '로컬푸드' 실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책은 총 9장과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먹을거리의 세계화와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5장에서 9장까지는 '로컬푸드'의 전파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역자들이 달아놓은 것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로컬푸드' 운동 사례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로컬푸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을 적어놓고 있다.

사실 '로컬푸드'는 단지 지역 먹을거리나 제철 먹을거리 이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로컬푸드'는 근대 문명의 반성을 담론으로써, 먹을거리를 시작으로 인류의 삶을 올곧게 회복자는 세계적, 총체적, 포괄적, 실천적 언어이다. 이런 '로컬푸드' 운동은 현재, 일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제주를 비롯해 강원, 전남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음식은 인간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근대 인류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새로운 사회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변혁은 '식탁혁명'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브라이언 헬웨일의 책은 한 번 눈여겨 볼만한 책이다.

현혜경(사회학과 강사)

◆ 제주의 기상상식

제주의 풍향과 기상 현상



오봉학 기상청 근무

삼국지 적벽대전 편에서 북방을 평정한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남하하다 적벽에서 손권과 유비의 동맹군을 만나 대치하던 중 그의 부하들에게 "무릇 화공이란 반드시 바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 법이요. 그런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오진 서북풍이 있을 뿐 동풍이나 남풍이 있을리 없소."라면서 호언장담했다가 동남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패하는 장면이 나온다. 조조는 화북(중국 북부) 사람이라 화중과 화남의 기상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물론 겨울

철의 주 풍향은 북서풍이다. 동남풍이란 현재 남동풍을 일컫음인데 남동풍은 겨울철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화중·화남에 이르러 성질이 온난한 고기압으로 변한 후 고기압 후면에서 저기압 접근할 때 중국 남부에서 종종 일어나는 바람이다. 지형과 기상에 대해 모르는 조조와 이를 섭렵한 제갈량과의 승부는 불을 보는 듯 뻔하다. 이로서 조조는 화중과 화남 정벌에 실패한다. 이처럼 기상은 전쟁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리조상들은 어떤 기상 업무를 하였을까?
흔히 조선 세종때 사용하였던 강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우기와 물이 높이를 재는 수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풍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실정이라서 <풍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 시대 영조 때의 기록(1770년 5월). 하나가 오래 동안 조선에서 측우기, 수표와 함께 풍기가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측우기와 수표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궁궐 안과 서운관에 각기 풍기대가 세워져 오랜 동안 바람도 관측해 왔다고 「기우기청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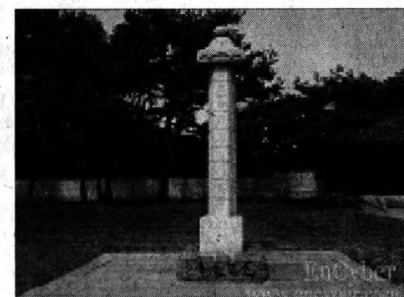
(祈雨祈晴騰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바람의 관측을 위해서는 나무에 풍기를 매어 사용하였으나, 당시는 창덕궁(昌德宮)의 통제문(通制門) 안, 경희궁(慶熙宮)의 서화문(西華門) 안에도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바람을 관측하기 위한 기대(風旗杆)를 꽂았다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 조상들은 측우기, 수표, 풍기 등으로 기상업무를 하였고, 이는 특히 농업기상에 관심을 두었으며 발전을 실증하는 자료가 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풍기대(풍기를 꽂기 위한 받침)로는 창경궁과 경복궁 풍기



<측우기>



<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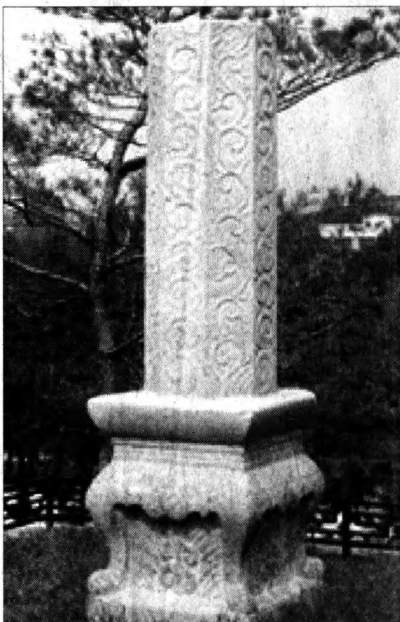
대가 있다. 풍기 이외에도 풍신기(風信旗)라 할 수 있는 바람을 알리는 깃발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후기 정조 때 주교사(舟橋司)의 보고서 보면 조선의 해군 군함에는 몇 가지 깃발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져 있다. 어느 선단(船團) 소속인가를 밝히는 깃발과 모든 배에는 바람을 살필 수 있는 깃발도 하나씩 세우도록 되어 있었다고 밝혀져 있다.

제주의 불철 기상특성은, 겨울동안 맹위를 떨쳤던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이에 따라 강한 북서풍도 약해진다.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은 변질되어 이동성고기압이 떨어져 나가고, 이동성고기압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동해

온다. 이동성고기압 후면에는 저기압이 이어서 동진 해 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날씨는 변화한다. 이동성고기압과 후면의 저기압이 한반도를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날씨는 변덕스런 봄 날씨가 되어 3, 4월을 주기로 하여 바뀐다.

따로는, 대륙고기압이 갑자기 확장하여 추위를 떨치는 일이 있는데 이를 꽃샘추위라 하고 3월 늦게는 4월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동해오는 고기압은 대륙에서 발원된 것이어서 건조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날씨는 건조하다. 봄에는 서쪽에서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동진하여 오는데,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풍상측에 해당되는 동부와 남부지역에 주로 강수를 기록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많은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봄에는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발생하는데, 중국사막지대의 토사가 상승기류를 타고 편서풍대를 통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면서 중국의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므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각종 호흡기 및 안과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및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래에는 발생빈도도 높아져 황사대책이 시급하다. 황



<풍기대>

사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국지적이기보다는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지점별 발생 횟수는 비슷하다.

이제 바야흐로 봄이다. 봄에는 중국상해 부근에서 고기압이 통과한 후 고기압 뒤에서 저기압이 접근 할 때 남동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는 일이 많다. 제주도에서는 남동풍이 불면서 한라산에 의한 뒤편상이 나타나며 기온 상승과 함께 들어오면서 중국의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므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각종 호흡기 및 안과 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및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래에는 발생빈도도 높아져 황사대책이 시급하다. 황

무론유설

우리대학을 일류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윤석산 국어교육 교수

슬로건이긴 하지만 우리 대학 성장 목표를 국내 20위권으로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자존심 상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인구 1%를 배경으로 하는 섬 대학에서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도시를 배경으로 살아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남부 대도시의 (앤더빌트 대학)만 해도 그렇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이 도시 인구는 55만, 학부와 대학원생은 1만 5백여명, 교수는 650여명, 재학생의 88%가

다른 주나 캐나다를 비롯하여 52개국의 유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학을 전공한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20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 문학 이론을 지배해온 신비평을 만들어낸 대학이기 때문이다. 아니, 법학, 의학, 신학, 공학, 예술 분야도 세계 어느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 대학과 비슷한 환경과 규모의 대학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데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열에 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250만권의 도서, 272여만 점의 마이크로폼 자료, 3만여 점의 시청각자료, 2만여종의 전기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는 도서관이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 자료와 발표 기회의 제공이 연구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도서관을 갖춰야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숙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 신문, 방송, 대학, 연구소의 발표물을 제목, 주제, 발표자, 날짜 별로 본문을 텍스트화 하고, 원하는 언어로 자동 번역해 제

공해주는 '미디어 마이닝 시스템(media mining system)'과, 책의 등을 자르지 않고 시간당 1500페이지까지의 전자책을 만들어내는 '스캔 로버트'를 갖춘 다음, 대학 홈페이지를 교수와 학생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자기 연구물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포털 사이트와 연결하면 우리 연구물로 전 세계가 뒤따를 것이고, 좁은 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잦은 환율 변동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이닝 시스템은 25억원 정도, 스캔 로버트는 3억원 안팎이다. 그리고, 전 교수와 학생 블로그의 개설은 내가 구축하고 있는 <한국 디지털 종합 도서관(www.kdlib.com)>에서 이미 2년 전에 무상으로 개조해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물론 우리 형편으로는 이 액수도 적은 건 아니다. 하지만, 년 6.7억원씩 들어가는 외국 저널 구입비와 열람실을 늘리기 위한 도서

관 증축하는 경비만 전용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켰다면 동문도 기업도 협조할 것이다.

전자책은 불편하다고 반대한다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문학 작품집은 아무래도 종이책을 선호하지만, 학술 논문은 검색을 통해 원하는 부분을 찾고 굵어다 인용할 수 있으며, USB 포터에 수만 권씩 담아 가지고 다니며 읽을 수 있고, 정 종이책을 원한다면 소량 주문 출판시스템(POD)을 이용하면 같은 분량의 대량 출판물 정가 정도로 자기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상상해 보라. 전 세계의 지식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발표할 수 있는 대학을 되도록 서울로 올라가려는 제주도 인재들은 물론 동남아 인재들이 모여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이다. 내가 10년 동안 사재를 바쳐 <한국디지털종합도서관>을 구축하고 계간문에 <다충>을 창간한 것도 서울의 각 도서관을 해매는 우리 대학 대학원생과 발표 지면을 못 찾는 제자들 때문이었다.

독자기고

'4·3 희생자' 두번 죽이나



김현숙 사회 1

국유 보수 세력들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4·3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들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시퍼런 명이다. 4월 3일은 제주도민들이 잊

어서는 안 될 특별한 날임과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시련 역사의 날이다. 1948년 4월 3일, 제주는 초토화되었다. 9만 여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들이 그 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유지하신 분들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여전히 힘겹게 생활하고 계신다. 아직 4·3 희생자들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여당과 보수 세력들은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또 다시 상처를 만들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4·3피해자들에게 국가원수로서 정부차원의 4·3공식 사과발표를 하였다. 또 2006년에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3 사건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희생자 및 유가족들은 60년 남짓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국회 제류 중이던 4·3특별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60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다. '제주 4·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호적등제가 누락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떤 법률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법률이다. 4·3사건 진상규명의 중요성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4·3사건 61주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4·3 단체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년 만에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켰고, 도내 각종 4·3 단체들은 발간하며 규탄대회를 전개하는 등 4·3 특별법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아닌 가 한다. 지난 시절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 43 특별법을 제정하였던 그 때처럼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게 아닐까.

독자기고

여전한 모꼬지 구태, 바로잡아야



김로마나 국어국문 1

모꼬지 시즌이다. 빠르면 목요일, 늦으면 금요일에 무리를 지은 학생들이 공경문을 들고 교수님을 찾는다. 공경처리가 되면 그대로 좋고, 운이 나빠 공경처리를 받지 못한다 해도 나쁘지 않다. 출결과 성적보다는 해방감이 더욱 절실한 시기인 탓이다.

우리는 논스톱 세대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빠르게 행동한다.

M방송사에서 절찬리 방영되었던 청춘시트콤에 반영된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움과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기대감이 마치 지겨운 입시를 이기기 위한 백신처럼 활용됐다. 모꼬지라 함은 바로 그렇게 부풀어 오르면 기대감이 터져 오르는 정점인 것이다.

모꼬지를 떠나기 위해 새 옷을 사고, 새 구두를 사고, 이도저도 아니던 무엇을 해 먹읍시다 라도 프린트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모꼬지를 떠난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는 모꼬지의 실상은 어떠한가. 인문대학교 일파 학과의 프로그램 중 군사훈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섞여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PT제부터 오리걸음, 토끼뛰, 선착순달리기까지. 물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상태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이랄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길러진 멤버

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예비군복을 맞춰 입은 신배의 구령에 맞추어 달리고, 구르고, 앞으로 취침에 뒤로 취침. 시키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어떠한 목표의식이나 향상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다들 하나씩, 혹은 자신도 이미 신배에게 당했으니가, 심원 한 장 가치도 없는 동조심리와 보상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들은 기합을 받으면서도 유지되는 수요가 모꼬지라는 문화 존속의 이유라고 한다. 그들의 말마따나 누군가는 기합을 받으면 서로 다같이 떠나는 모꼬지가 즐거워 참가하는 것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기합을 받았다고 해도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를 이어 내려온 관습 중에도 악습이 있을 수 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몇 해 꽤나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습을 포장할 생각보다는, 몇 해나 의식 없이 악습을 답습해 온 자신들을 부끄러워 할 일이다. 굳이 기합을 주고 굴리는 모꼬지를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서 하단에 경고문구라도 달아 두면 될 일이 아닌가. 'PT제조, 오리걸음, 토끼뛰와 선착순 달리기'를 감당할 자신 있는 자만 신청하라고.

흔히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 했다'고 회자하지만, 이는 잘못 전해오는 말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악법이 법이라면 지난 5월, 우리는 촛불을 들고 산도 앞의 물대포를 막아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불거지는 진통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악습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사설

교육환경 변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학은 봄과 함께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 새봄, 캠퍼스는 개혁을 맞이하는 재학생과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으로 활기차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의 새봄은 어느 때와 다름없다. 아직 겨울의 긴 잔흔이 캠퍼스에 남아 있지만 상춘의 소식은 계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새로움은 변화를 의미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새봄은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변화란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본래적 의미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발전적 의미의 총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개념들은 연구와 교육을 두 축으로 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내고, 교육을 통해 창조된 유형 자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순기능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대학의 내적 변화와 성숙, 이것이야말로 올 한 해 우리대학이 추구해 나갈 분명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화는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는 시발점이며, 대학을 사회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된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 교육기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대학은 주변 사회의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이끌어 줘야 하는 고등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대학의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등의 내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대학의 연구와 학문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외적인 환경이 먼저 변해야 한다. 성장 중심의 무질서한 캠퍼스 팽창, 외형을 중시하는 성과지상주의 행정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마비시켜 버렸고 대학의 근본이념을 황폐화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대학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의식 변화를 통한 새로운 대학공동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변화의 시작을 캠퍼스 환경 조성에서 시작해 보자. 사실 우리대학의 캠퍼스 환경은 일반 사회풍경과 다를 바 없다. 학문의 전당으로

서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 사방팔도로 길이 시원스럽게 뚫려있고, 무질서한 차량의 행렬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소음은 어떠한가? 차량의 소음, 시간을 가리지 않는 공사장 소음, 행사장의 굉음 등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녹색 캠퍼스를 잃어버리고 소리에 삼켜져 버린 대학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캠퍼스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모든 구성원이 침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변화의 연속은 캠퍼스 환경 변화에서 추구해 보자. 거의 매일 대학가에는 자축 혹은 홍보용 플래카드가 그림썩하게 매달려 있다. 홍보 행사에 강의 휴강은 예사가 되어 버렸다. 행사 후에 남겨진 쓰레기 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슬픈 일이다.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는 기본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글에서 읽은 한 구절이 생각난다. "못된 자녀를 만들려면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야"라고, 교육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서로의 절제와 양보 그리고 적당한 규제가 변화를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변화의 실천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대학당국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심도 있는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교육이 대학 존재의 본질이다. 행정 책임자들은 캠퍼스를 둘러보고 대학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청취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 이는 현 단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확한 목표설정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환경의 변화, 이것은 새로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을 위한 작은 밑알이다. 내적 성숙을 위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창조의식이다. 학생들이 마음껏 학문을 탐구하고 사회적 자아 의식을 만들어 내는 학문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캠퍼스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환경 개선을 통한 변화가 교육이라는 틀 속에 담겨 있을 때 대학 교육이 추구하는 실천궁행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독자기고

job-sharing에 대한 문제제기



강수나 행정 2

높은 토익점수, 학점, 유학생을 포함한 최고의 스펙으로도 취업이 힘든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인 'job sharing'이다.

일자리 나누기 운동 'job sharing'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언뜻 듣기에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해결책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과연 실제적으로 취업문제에 알맞은 방법일까?

'job sharing'은 경제위기가 사회적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

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과거의 독일에서 일자리 운동의 하나로 실시됐던 폭스바겐사의 '아우토5000'은 성공작이었다.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부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합의가 아닌 단독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선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20~30대 신입사원이다. 최근 30대 기업에서 대졸 신입들의 초봉 수준을 최고 28%까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삭감한 임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삭감한 임금으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이 인턴과 임시직 등의 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인턴직원들이 후에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낸다면 다행이지만,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 두는 취업자들에게는 짧은 기간의 직장이므로 정규직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안정한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눈가림일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지금 'job sharing'을 실시하

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나날이 증가하는 정규직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절묘한 찬스가 바로 'job sharing'인 것이다.

현재의 연봉에서 약 30%를 삭감한다면 4~5년 전 수준의 연봉이 된다. 'job sharing'으로 인턴직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기업은 얼마 다니지도 않을 인턴들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연봉을 4~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으로 인턴들을 고용한다고 해도 그 인턴들은 결국 계약직이고 언젠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job sharing' 정책에 기업들의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정책, 취직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과연 이 정책은 반가운 선물일지 의문이다.

지금의 청년실업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면 면에 게재하고, 독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jnu.ac.kr, 홈페이지 http://www.cnujnu.com

재일 한국인 노인요양시설 '아리랑 한신' 을 가다

◆노인요양시설 운영하는 재일제주인 강영수씨

민족의식 약해지는 젊은 세대들 '통일조국'을 보여주고 싶어

“1세 어르신들 은혜에 보답하고자”

일본 취재 둘째 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서부지구 상임위원장 이수남(52) 위원장과 서덕태(67) 지부교문의 안 내로 우리는 니시노미야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향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는데 노인개호시설장인 강영수(조총련 효고현 지부 위원장)씨가 우산을 들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에서 내리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는 한글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안의 어르신들은 마침 오침을 마치고 건강체조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내부와 그 모습들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우리 취재단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문구도 볼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 일행 환영'



지난 2005년 1월 설립된 이시노미야의 노인요양시설인 '아리랑 한신'. 어르신들이 오침 후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곧이어 건강체조가 시작되었고, 그 동안 강영수씨는 이 곳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는 앨범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사진 중에는 민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작은 공연을 하는 사진도 있었다. 이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이나 봉사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 등을 정성스레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판 돈으로 시설에 필요한 기기도 사다준다. 건강체조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집에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여러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했으나, 단어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에는 원활하지 못해 시설의 복지사인 김갑년(39)씨가 중간중간 일본어로 설명해주며 인터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작년 4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갑년씨는 처음에는 이쪽 분야의 일에 흥미가 있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일본의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1세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이 시설을 찾아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7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말을 쓸 일이 적어 일본말만

쓰다 보니 이제는 우리말이 약간 어색해졌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제주시 구좌 월평 출신인 김경숙(88)씨.

김경숙씨의 가족은 제주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먼저 떠났고, 자신은 14살 때 혼자 일본으로 건너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일본으로 건너온 후 내복이나 셔츠를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 오빠는 만났지만 서로 바쁘게 지내다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월급은 15전이었고 그 시대에서도 매우 박봉이었다. 적은 돈이었으나 그래도 돈을 벌러 일본에 온 것이라 고향에 돈을 몇 번 부치긴 했으나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집안에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고 겸손한 듯한 어투로 말을 했다.

그 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살면서 제주 남자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다. 아이들 중 둘은 민족학교를 나왔

고, 셋은 일본학교를 나왔다. 모두가 민족학교를 나오지 못한 이유는 비싼 학비 때문이다. 민족학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일본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편이다.

몸은 일본에 있어도 고향은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으나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등으로 한국에 가지 못했다. 전쟁 때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고, 이 당시의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다. 해방이 되고서야 조금 살만해지다가 50살이 넘어서야 제주를 찾게 되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고,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살아계셨다. 제주에는 약 한달간 머물렀으며 어머니 산소에도 자주 찾았었다고 말한다. 후에 어디에 묻히고 싶냐는 질문에는 자신들이 한국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묻히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는 덤덤함이 묻어났다.

“이곳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선국적만을

가지고는 일본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경상남도고향인 임상엽(80)씨의 이야기에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였다. 조선국적으로는 취직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국적을 얻는다고 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며 민족의식도 희박해져 간다고 한다.

임상엽씨는 손자가 8명이 있는데 모두 민족학교를 나와서 한국어는 할 줄 알지만, 일본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다 보니 민족의식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민족의식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개인의 의지이며, 후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바를 자신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늦었는지 모르나 이 후세들의 손으로 반드시 통일일을 하여, 그 통일 한국을 젊은 세대들이 보았으면 한다는 소망이 있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이호형 기자

취재 둘째날, 조총련 효고현 본부 상임위원장 이수남씨와 간단한 점심식사 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 하게 되었다. 요양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요양시설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들은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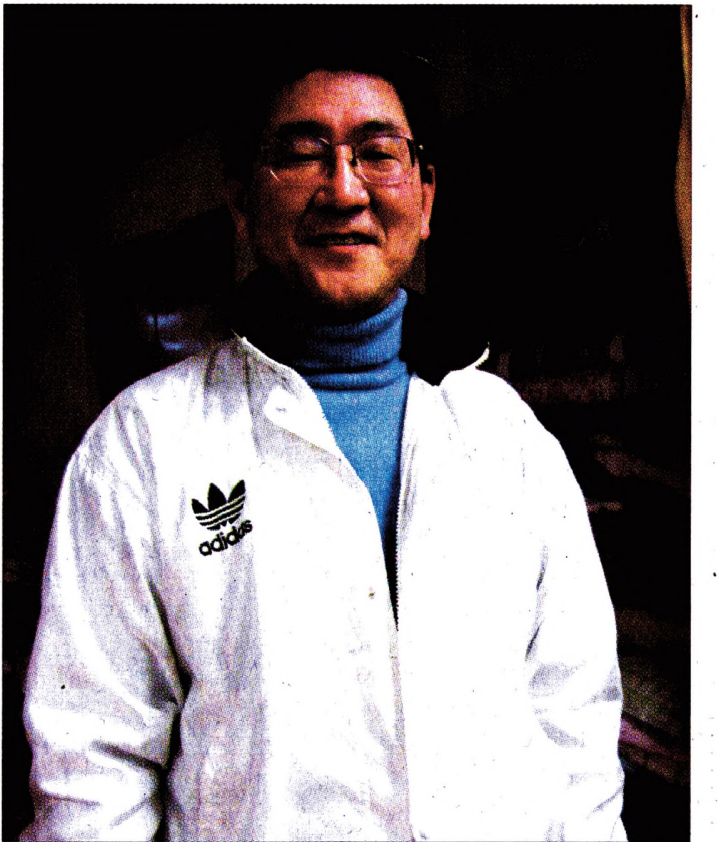
몸이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직원 한분 한분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정성껏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르신들과 직원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주대학교 환영합니다”를 일본어로 적힌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환영속에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에 위치한 NPO 법인 ‘아리랑 한신’이라는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재일제주인 2세 강영수씨를 만날 수가 있었다.

올해로 원두 살인 강씨는 민족학교를 졸업했고 교토에 생활하게 되면서 노인에 대한 시설을 설립해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조총련 효고현 니시노미야지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어릴 적부터 1세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요양시설에 들어오기 위한 자격요건을 물었더니 조총련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한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은 어렵지만 이곳에 머물수 없다고 했다. 보험료를 지급한 노인들은 점심값의 경비만 비용을 따로 받고 그 외에 모든 경비는 무료이다.

강씨는 “남은 여성 동안은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 2세와 3세에 이어 4세들에게도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일제주인 2세인 강씨에게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족은 없다.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 부산에 누나 한 분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제주도를 생각하면



4·3 사건이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으로는 한라산이 떠오른다고 했다. 어릴적 부터 일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주를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언젠가 꼭 한번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했다.

강씨는 “조총련과 민단이 국가적인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나간다면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도 점차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씨가 소속되어 있는 조총련에서는 특정한 달을 정해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1월에는 일본회관에서 신년회와 성인식을 열고 있으며, 4월에는 큰 공원으로 벚꽃놀이를 하러 간다. 또 광복절에는 학교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년회를 통해서 재일교포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차별의식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일본

인 납치 문제가 크게 벌어지면서부터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데 일본사회에 대한 제약을 받거나 가고 있는 동포사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일제주인도 마찬가지로 재일동포 대부분이 일본 사회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후손들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남은 여생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민족과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재일제주인 2세 강영수씨를 취재하며 민단과 조총련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또 한반도 내부에서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동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정치적인 영향이 없는 울타리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양훈석 기자

재일일본조선인총연합회 효고현 본부 국제부장 김상행씨

“얼빠진 교육으로는 민족일 못지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총련을 줄여서 표현한 글자이다.

재일제주인을 취재하기 위해 오사카를 방문한 취재팀은, 조총련에 소속돼 있는 효고현에 위치한 민족학교를 방문을 하고난 후, ‘주몽’이라는 한글 간판이 새겨진 한국식당에서 효고현 본부 국제부장 김상행씨를 만날 수 있었다.

김씨는 재일제주인 2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일본 효고현 본부에서 일본시 의회, 국회의원, 경제인, 민간 단체장들을 만나, 조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씨는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자기 고향을 위해 노력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민족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로 아흔 살로 제주에 살아가신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김씨는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적시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1세대 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재일교포이라는 신분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을 없애 줄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민족학교들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승인이 없는 비공식적인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일한국인들은 부정적인 차별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족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강한 자부

심으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조총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조총련’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이 있다.

김씨는 민단을 예로 들며 현재 2세에서 3세를 거치는 세대를 보면 조총련 경우 1세부터 4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민단 경우는 1세와 2세까지만 한국어를 사용하고, 3세와 4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민단의 젊은 세대 자녀들은 고향을 찾아가고, 친척들이 만겨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대외 단절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는데 ‘괴리감’을 가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 속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들은 민족정

신을 이어나가고자 민족학교를 세웠다. 이들은 일본사회의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뿌리를 지키려는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씨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조선대학교 외국어 학부에 재학중인 막내아들이 평양 수학여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평양을 한번 다녀오더니 평양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 제주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당장은 고향 제주를 찾아가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김씨는 제주 지역사회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제주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감귤 보내기 운동’과 ‘양배추 보내기 운동’, 그 밖에 체육,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 돼 나가는 모습들이 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초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끔씩 제주와 관



김상행씨는 감귤보내기 운동이 통일을 실현하는 기초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련된 TV뉴스를 보면 하루 관광객이 몇 만 명 이상 제주를 방문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고향 제주가 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조총련재일제주인’이라는 나의 그릇된 편견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양훈석 기자